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0.(화) 조간 2022. 9. 19.(월) 11:00	배포 일시	2022. 9. 19.(월) 06:00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성순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0-5955)

항만건설현장, 하반기 일제 안전점검

- 부산항 등 4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 점검 장관이 직접 나서 [9.21(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1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한 달 간 부산항 신항 등 4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주요 항만건설현장에 점검자와 함께 직접 점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 총 46개 공사현장에 대해 진행되며,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올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이번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이어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추가로 점검한다.

*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모바일로 점검내용을 저장하면 관리자가 동시에 확인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안전점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2년도 하반기 항만건설분야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계획

□ 점검목적

- 시공중인 항만건설현장 내 유해·위험요소 발굴,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및 태풍 피해복구와 대비 사항 점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22년 시공 중인 중대재해 관리대상 사업장 46개 현장

합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46	7	3	4	-	4	4	7	4	7	5	1

- (점검기간) '22.9.21(수) ~ 10.21(금)

- (점검반) 건설안전기술사 보유 전문가, 공무원 등 7개조(1조 4인)

* (반장) 항만기술안전과장 /(반원) 7개조 21명(본부 12, 기술자문위원 7, 용역사 2)

- (점검방법) 상반기 점검시, 안전관리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항만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점검

*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안전체크 海'를 이용한 현장 점검·지적 및 즉시조치

□ 향후 계획

- '22.9.19. : 안전점검 참여자 사전교육

* 현장 안전점검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안전체크 海' 이용방법(모바일) 등 사전교육 실시

- '22.9.21. ~ 10.21. : 안전점검 시행(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관련법 상 의무이행 확인)

- '22.11. : 점검결과 공문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항만건설 현장 안전점검 빠르고 편리한 ‘안전체크海’로

6월 20일부터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통해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가 시작됩니다

